

자력대피 불가 환자 피난 방법



• 등에 업고 이송 (1인 1조)



• 환자의 가슴과 팔을 들고 이송 (1인 1조)



• 손을 끼고 이송 (2인 1조)



• 들것으로 이송 (2인 1조)



• 휠체어 또는 침대차를 사용하여 이송



• 들거나 끌어서 이송
(시트커버, 커텐, 모포 등 이용)

⚠️ “다시 기억해 두세요”

- ① 대피 시 각 병동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기
- ② 환자에게 방연·방진마스크 착용(없을 시 구조손수건 사용)
- ③ 거동가능환자, 경증환자, 중증환자 우선 대피
- ④ 구조대, 피난용 승강기 등 활용하여 대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소화기, 어떻게 사용할까?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해요!



- ① 안전핀을 뽑는다.
- ②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 ③ 손잡이를 움켜쥐는다.
- ④ 분말을 골고루 쏜다.

옥내소화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함께하면 더 안전해요



- ① 문을 연다.
- ②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 ③ 밸브를 돌린다.
- ④ 불을 향해 쏜다.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의료시설 화재




사고 사례

이천 투석병원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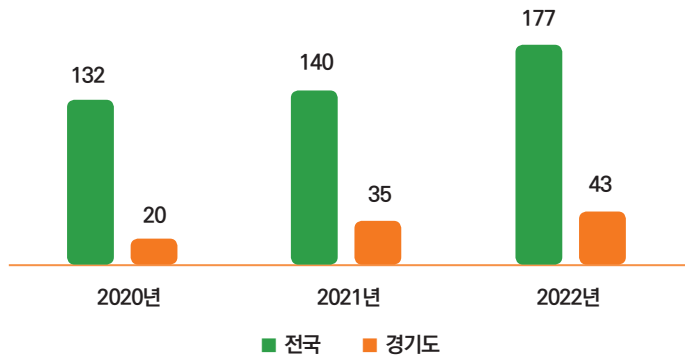
일시	'22년 8월 5일 10시경	
피해현황	사망 5명, 부상 43명	
사건개요	3층 화재가 4층 투석병원으로 확산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일시	'18년 1월 26일 07시경	
피해현황	사망 47명, 부상 145명	
사건개요	1층 화재발생으로 거동 불편 환자 다수 사상 발생	

현황 및 주요원인

의료시설 화재현황('20~'22년)



- 전국 의료시설 화재 449건 중 경기도 98건(21%)
- '22년 기준 전년대비 19% 증가(경기도)

의료시설 화재 주요원인

- 전기적 요인(43.2%) > 부주의(31.4%) > 기계적 요인(9.7%)
- 누전·접촉불량, 흡연·화기취급, 과열·과부하·노후 등

의료시설 화재 특성



도심지 교통혼잡
⇒ 소방차 도착시간 늦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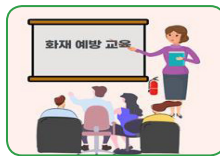
대피곤란 환자 다수
⇒ 다수 인명피해 우려



산소탱크 등 폭발위험
⇒ 대형화재 확산

야간 상주인원 감소
⇒ 신속한 대처 어려움

의료시설 안전관리



- 1. 화재 예방 교육**
-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법
 - 시설 맞춤형 안전교육



- 2. 화재 대비 소방훈련**
-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 3. 소방시설 등 안전 점검**
- 자체점검 의무 이행
 - 비상구 및 통로 확보
 - 피난 방화구획 점검 (화재 시 최단기간 내 구역 이동 중요)

국민행동요령



- 1. 화재 알리기**
- 비상벨을 눌러 주변 병동에 화재발생 전파



- 2.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
- 화재실의 환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
 - 거동 불편 환자들은 침대나 시트 이용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옥상으로 대피



- 3. 119 신고하기**
- 안전한 상태에서 신고
 - 화재위치, 갇힌 사람 등 전달
 - ※ 현재위치 : 0동(부근)00병원



- 4. 초기 소화 시도(가능할 때)**
- 소화기, 옥내소화전 활용 진압
 - 진압이 불가능하면 즉시 대피



- 5. 약속된 장소로 모이기**
- 약속된 피난 장소로 이동
 - 병실 별 대피인원 파악



- 6. 대피 후 재진입 금지**
-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화재진압 전 병실로 다시 진입 금지